



성 유대철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최병애 (파우스티나)
 이새름 (엘카나)
 사 목 회 장 : 이우출 (예로니모)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일반), 7시(청년)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고 해 성 사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관 면 혼 배
			주 일 ✦ 미사 전 30분 평 일 ✦ 미사 전 15분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축 명

- 7월 25일(목)은 본당 부주임 신부님이신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의 영명 축일이며, 7월 31일(수)은 본당 주임신부님이신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항상 기도 중에 본당 신부님들의 영·육간 건강하시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축아미사 및 축아식: 7월 28일(오늘) 11시 교중미사**
 (* 교중 미사 후 점심식사 꼭 드시고 가세요!)

◎ **견진성사 (10월 20일 주일, 오후 3시)**

- 대상: 중 1학년 이상, 세례(첫영성체까지)받은 모든 교우
- 견진 교리 신청: 8월 11일(주일)부터 매 미사 후 로비에서 접수
- 견진 교리 일정: 9월 6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교리 수업일	9월: 6일, 20일, 27일
	10월: 4일, 11일, 18일
예행 연습일	10월 19일(토) 오후 8시

◎ **고3 수험생 및 대입 입시생을 위한 100일 기도**

- 2020년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한 100일 기도 모임에 참석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예비모임: 8월 4일(주일) 교중 미사 후, 1층 프란치스코 홀
- 시작일시: 8월 6일(화) 오전 9시 ~, 지하 성가정 방
- 문의: 성당 사무실 (02-3447-0750)

◎ **교적 정리 안내**

- 현재 본당 소속 교적 중 이사 등으로 인한 불명 세대 및 구역 외 세대 교적을 정리 중입니다. 실거주지 주소와 교적상의 주소가 다른 분들은 본당 사무실에서 정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연락 불가 및 정리되지 않은 교적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서울대교구 거주 불명 교적으로 진출 처리됩니다. (8월말까지 정리에정)
- 교구 거주불명 처리 기준**
 → 주소 및 연락처 불명
 → 교적상 성사 및 판공 기록, 교무금 납부 내역이 5년 이상 없는 세대

◎ **청년 제 41차 꾸르실로 환영식**

- 참가자: 유지희 라파엘라, 김하현 마르첼리나
- 환영식: 7월 28일(오늘) 오후 7시, 1층 프란치스코홀
- 문의: 배 베드로 (010-2720-1256)

◎ **우리농 매장 시간 안내**

- 8월 1일(목)부터 한 달간 평일 운영은 안 하며, 토요일 저녁 7시 미사 후, 일요일 오전 9시 미사 후~ 오후 5시 미사 후까지 합니다.

◎ **본당 단체 회의록 및 회계 장부 제출**

- 본당 제 단체들(동호회 포함)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각 단체별 회계 장부를 상반기(6월말까지) 기준으로 마감하여 회계 장부와 통장, 회의록을 7월 28일(오늘)까지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 임

- 7월29일(월): 성령 기도회 (강사: 김도영 빈첸시오 신부)
- 8월 2일(금): 남성 구역장 회의
- 8월 3일(토): 태교모임 / 복사단 자모회

성가번호 입 당: 40 예물준비: 성가정 성가, 153 성 체: 498, 174 파 견: 청담동본당가

화 답 송



주 님 제 가 부 르 짓 던 날 당 신 은 응 답 하 셧 나 이 다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96)

서평 <연 어>(4)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이유?’ 참 거창한 말이다.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나 해당되는 질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연어>를 읽으면서 인생은 삶의 이유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임을 깨닫는다. 연어가 바다에서 높은 강으로 거슬러 오르는 이유, 그리고 거슬러 오르기 위해 고통과 시련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은빛연어는 강을 거슬러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알을 낳기 위한 것이냐며 혼란스러워 하지만 어렵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들의 죽음을 보면서까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다. 다음 후대를 위한 사랑, 은빛연어와 함께 긴 여정을 같이 해준 눈말은연어와의 사랑.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그런 사랑은 쉬지 않고 흐르는 초록강이 기억하고 있고 징검다리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또 알에서 태어난 연어들은 또 다른 사랑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온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이미 초록강이 은빛연어에게 가르쳐준 존재의 이유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연어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초록강의 존재 이유다. 연어들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 상류로 올라온 연어들은 징검다리를 마주한다. 자신이 짓밟힘으로써 남을 건너게 해주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한다.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이유는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함이다. 흠 없는 어린양!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날 밤 죽음의 힘이 건너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어린양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건너가게 만든 파스카의 신비가 녹아있다. 징검다리의 존재 이유에서 또 하나의 파스카를 발견한다.

상류 여울로 올라온 연어는 가장 장엄하고, 가장 슬픈 풍경 속에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말씀, “다 이루어졌다.”(요한19,30)는 말씀이 떠오른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하셨다. 최고의 사랑인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요 삶의 이유인 것이다. <연어>는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며 삶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청담동 성당 주임 김민수 신부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등헌 예율		교무금 납부 현황	
연중 제 16주일	12,945,430원	총 세대수	4,135세대
본당 시설보수 2차	5,589,600원	총 납부세대	1,285세대
교무금	18,937,000원	지난주 납부세대	10세대
성소 후원금 (5건)	105,000원	총 납부율(%)	31.1%
감사 헌금 (07/17 ~ 07/23)			
정 요셉	100,000원	한 유리엘	100,000원
김 안젤라	50,000원	김 베드로	50,000원
김 체칠리아	100,000원	김 루치아	1,000,000원
이 유스티나	300,000원	정 릴리안	30,000원
정 캐더린	50,000원	김 시도니오	100,000원
합계 : 1,880,000원			